

“행복했던 촬영일지...내 연기인생 전환점”

매 장면 헛갈리게...참 힘들었죠
송중기·옥택연 형에게 많이 배워
데뷔때부터 쓴 촬영일지만 10여권
이번엔 반성 대신 나에게도 칭찬
질리지 않는 연기, 변함없는 목표



연기자 곽동연은 2일 종영한 tvN '빈센조'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애정을 많이 쏟은 드라마”라고 밝혔다.

“확실한 전환점이 됐죠.”
연기자 곽동연(24)이 2일 tvN 드라마 '빈센조'를 끝내며 말했다. 올해 데뷔 10년 차로 25편이 넘는 드라마에 설 없이 출연해온 그는 “살면서 축적한 각종 '소스'(정보)들을 전부 꺼내어볼 기회”라고 설명했다. 극중 곽동연의 활약상을 돌이키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악덕기업 바벨그룹 회장 옥택연의 이복동생 장한서를 연기하면서 '악의 축'을 담당하다 막판에는 마피아 변호사 송중기와 손잡고 형에 맞섰다. 이를 통해 동경과 분노를 오가는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한 덕분에 “처음과 끝이 가장 다른 '성장캐(릭터)”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스포 유혹 참느라 혼났어요”
시청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만큼 “이야기에 혼란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곽동연은 “매 장면을 헛갈리게 만드는 게 어려우면서도 재미있었다”며 웃었다.
“언젠가 밤 11시쯤 늦은 시간에 대본을 받고 나서 깜짝 놀라 연출자 김희원 PD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첫 질문이 ‘애(장한서)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였죠. 저조차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FT아일랜드 멤버 이흥기 형도 16회가 끝나자마자 ‘결말이 뭘래!’라고 묻더라고요. ‘방송으로 확인하세요’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도 스포일러는 절대 금지니까요. 하하하!”
‘빈센조’로 얻은 결실은 연기 변신뿐 아니다. ‘항상 힘을 북돋아 주는’ 송중기와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옥택연을 만나 “현장에 꼭 필요한 태도”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
“박보검·유승호·여진구 등과 호흡을 맞춰 ‘남자 상대역 복이 많은 배우’로 불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송중

기·옥택연 형을 비롯해 수많은 선배와 함께 하면서 ‘연기의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형들과 맞추는 ‘케미’도 좋지만, 언젠가는 뜻밖의 로맨스도 한 번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껏 써온 촬영일지만 10여권”
마지막 촬영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2012년 안방극장에 데뷔한 이후 빠짐없이 써온 촬영일지에 “힘들 때마다 현장에서 무한히 만끽한 행복을 꺼내 보며 되새기자”는 말을 적었다. 이토록 ‘심플하게’ 종영 소감을 써넣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촬영장에서 강하게 받은 느낌이나 아쉬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모으면 수첩 10권은 훌쩍 넘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욕과 한탄, 다음에는 무조건 더 잘하자는 다짐이 주된 내용이죠. 이번에는 그저 현장에서 즐거웠던 기억만 남더라고요. ‘(작품에)잘 물어봤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유난히 엄격하기보다,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이니 더욱 조심하자”는 생각에 주말에는 외출도 삼갈 정도다. 취미까지도 온통 ‘연기’에 맞는 삶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그만큼 잘하고 싶으니까”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설 때면 테니스, 꽃꽂이, 아이스하키 등 여러 가지를 배워요. 아이스하키 장면을 소화한 것처럼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제 무기가 되거든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밥벌이’이고, 재주가 연기뿐이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주일만 쉬어도 몸이 근질거리 곧바로 대본을 봐요. 작품 준비부터 촬영까지 모든 과정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목표도 한결 같다. “질리지 않는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죽기 전에 100% 만족스러운 연기를 해낼 수 있을까?’ 싶지만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저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시청자들의 말이 연기를 꿀 수 없게 하죠.”

연기하는 ‘소녀시대’

임윤아 영화 ‘기적’ 개봉 준비
최수영, 주연드라마 OTT 공개
권유리 사극, 티파니는 뮤지컬



임윤아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들이 비슷한 시기에 각자 주연 영화와 드라마를 내놓고 팬들과 만난다. 연기자로서 선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저마다 홍보 활동을 지원하면서 시너지도 내고 있다.

영화 ‘기적’(감독 이장훈·제작 블러썬픽처스)의 6월 개봉 준비에 한창인 임윤아는 지난 달 26일 제작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프로모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6년 경상도의 한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친구 역이다. 경북 영주 출신인 조부모에게 직접 사투리를 배웠다. 2019년 942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엑시트’의 흥행을 다시 노린다.

최수영은 지난달 30일 주연 드라마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를 내놨다. 2019년 촬영을 일찌감치 마쳐 중국 아이치이·미국 비기·일본 프라임미디어JP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잡지사 기자로 분해 케이팝 스타 역의 최태준과 로맨스를 그린다.
권유리와 티파니도 색다른 도전에 나섰다. 권유리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 ‘보쌈-운명을 훔치다’로 첫 사극 주연을 맡았다. 티파니는 7월18일까지 서울 구로구 대성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시카고’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SNS로 동료의 작품을 응원하는 등 홍보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권유리는 최근 같은 멤버인 태연이 고정 출연 중인 tvN ‘놀라운 토요일’에도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가수 이지훈, 예비신부 모습 첫 공개

가수 이지훈이 10월 결혼한다. 이지훈은 2일 개인 SNS를 통해 “많은 분의 축하에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예비신부와 찍은 웨딩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소속사 퍼피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10월 웨딩마치를 울린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가장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전했다. 이지훈은 1996년 데뷔해 노래 ‘왜 하늘은’ 등을 히트시켰고,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

박나래, ‘성희롱 발언’ 눈물의 사과

개그우먼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를 3월 출연한 유튜브 ‘헤이나라’ 제작진과 함께 정보통신통신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해당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만지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 측은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왕자의 게임 비앙코, 가수 맨스 성폭행 폭로

미국 인기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출연한 영국 배우 에스미 비앙코가 미국의 유명 록가수 메릴린 맨스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1일(한국시간) 현지 연예매체 피플·TMZ 등은 비앙코가 맨스를 상대로 성폭행과 학대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비앙코는 소장을 통해 맨스가 2009~2013년 폭력·협박 등을 동원해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BTS, 신기록 행진이 시작됐다

- 1 이달 21일 2번째 영어 싱글 발표
- 2 '빌보드 뮤직 어워즈' 4부문 도전
- 3 자체 최다 노미네이션 기록 주목



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한국시간) 미국 3대 음악상 중 하나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무려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수상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기록 행진'이 다시 시작됐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두 번째 영어 싱글곡 '버터'(Butter)를 전 세계 동시에 내놓으며 또 한번 '메가 히트'를 예고한 가운데 24일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의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소셜 세일즈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에 노미네이트됐다.

이에 따라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로 처음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은 자체 최다 부문 노미네이션 기록을 세웠다. 톱 듀오/그룹에는 3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는 5년 연속 후보에 올랐다. 톱 셀링 송과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에선 올해 처음으로 후보가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 메가 히트송'으로 자리 잡은 '다이너마이트'가 여전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역주행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힘이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

“이젠 영화연출”...메가폰 잡은 배우들

이정재, 상업영화 '헌트' 촬영 스타트
이제훈·최희서·박정민, 왓차서 각본도
조은지 '입술은 안돼요'서 감독 변신
류현경, '날강도' 전주국제영화제 공개



이정재, 이제훈, 최희서

정우성·하정우·문소리 등 배우들이 영화를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한 데 이어 또 다른 배우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정재·이제훈·최희서·박정민·조은지·류현경 등이 올해 자신들의 연출 데뷔작을 선보이며 관객을 새롭게 만날 전망이다.

이정재는 연예계 오랜 '절친'인 정우성과 함께 주연까지 맡는 영화 '헌트'를 연출한다. 이미 정우성이 '보호자'를 연출해 개봉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정재도 감독 데뷔 대열에 합류한다. 이정재의 새 작업 무대에서 두 사람은 1999년 영화 '태양이 없다' 이후 21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게 돼 또 다른 눈길을 끈다.

이제훈·최희서·박정민·손석구도 감독으로 나선다. 이제훈이 영화관계자들과 함께 설립한 콘텐츠 제작사 하드컷이 '엔프 레임드'라는 이름 아래 제작하고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차를 통해 올해 12월 선보이는 작품을 각기 연출한다. 배우들은 각자 한 작품을 맡아 직접 각본도 쓸 예정이다.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강한 연기를 펼쳐 온 조은지도 감독으로서 관객을 만난다. 올해 개봉할 예정인 로맨스물 '입술은 안

돼요'이다. 류승룡·오나라·김희원·오나라 등 스타급 연기자들이 그의 연출 현장에 힘을 보태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조은지는 이미 2017년 단편영화 '2박3일'로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연출 재능을 인정받았다.
류현경은 2010년 연출한 '날강도'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며 감독의 면모를 과시한다. 4월29일 막을 올린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신설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등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소개하는 그는 2009년 '광태의 기초'라는 작품을 연출해 일찌감치 감독으로 나선 바 있다.

배우들의 잇단 영화 연출은 이야기를 펼쳐내는 데 배우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절박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은 “배우가 아니더라도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파र्ट이든 상관이 없다”면서 “관계자들과 영화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